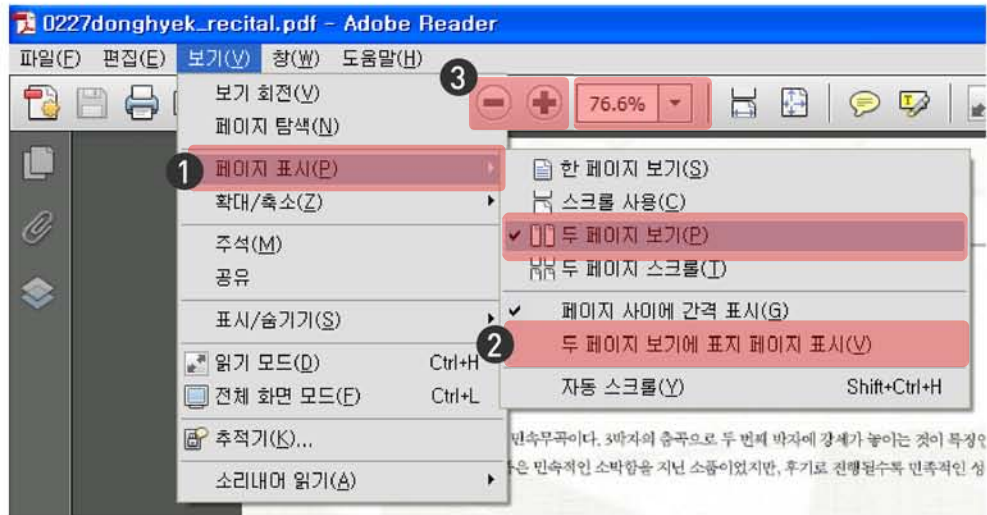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1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2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3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Anne-Sophie**

**Mutter**

**CRE**&**DIA**

**Lambert Orkis**

**in Recital**



# The Class Hyosung

더클래스 효성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선택한 공식딜러입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Premium Lifestyle Solution Provider로  
 끊임없는 고객만족과 서비스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Mercedes-Benz



## 더클래스 효성

전시장 : • 강남대로 02) 575-7500 • 송파 02) 3434-4000 • 분당정자 031) 786-6000 • 안양평촌 031) 689-8900 • 구리 031) 579-0900  
 • 용인수지 031) 5183-9200 • 스타필드하남 031) 8072-8900 • 청주 043) 299-9000 • 천안 041) 620-7000 • 인종 중고차 죽전 031) 786-6171  
 서비스센터 : • 강남대로 02) 570-1111 • 서초 02) 3488-2400 • 도곡 02) 575-7340 • 송파 02) 2152-3333 • 죽전 031) 786-6100  
 • 안양평촌 031) 596-2600 • 구리 031) 579-0970 • 용인수지 031) 290-3700 • 청주 043) 299-9090 • 천안 041) 620-7070  
 고객센터 : 1899-0808

###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30kg, 9G-TRONIC), 복합연비: 13.0km/ℓ (도심연비: 11.3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복합CO2 배출량: 148g/km · S 450 Long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2,140kg, 9G-TRONIC), 복합연비: 8.6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복합CO2 배출량: 205g/km · S 560 Long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130kg, 9G-TRONIC), 복합연비: 8.4km/ℓ (도심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복합CO2 배출량: 211g/km ·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275kg, AMG SPEEDSHIFT MCT 9-Speed), 복합연비: 7.8km/ℓ (도심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복합CO2 배출량: 22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ne-Sophie Mutter  
& Lambert Orkis in Recital

**안네 소피 무터 &  
램버트 오키스 리사이틀**

---

2019년 11월 29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8PM Friday, November 29,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바이올린, 안네 소피 무터

Anne-Sophie Mutter, Violinist

피아노, 램버트 오키스

Lambert Orkis, Pianist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



베토벤 1770-1827  
독일

## 바이올린 소나타 4번 가단조, 작품번호 23

20'

- I. 매우 빠르게
- II. 느리게 스케르초 풍으로, 조금 빠르기보다 더욱 빠르게
- III. 매우 빠르게

베토벤 1770-1827  
독일

##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바장조, 작품번호 24 '봄'

24'

- I. 빠르게
- II. 느리고 매우 감성적으로
- III. 스케르초. 대단히 빠르게
- IV. 론도.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CREEDIA

중 간 휴 식

베토벤 1770-1827  
독일

## 바이올린 소나타 9번 가장조, 작품번호 47 '크로이처'

44'

- I. 느리게 음 하나하나를 충분히 끝먼서 .매우 빠르게
- II. 느리게 변주곡풍으로
- III. 피날레. 매우 빠르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ORFEO

# More than Cinema

음악을 보다, 영화를 듣다



오르페오 예약문의



CREDIA

BARCO

STEINWAY LYGNDORF

UNITEL

L. v. Beethoven 1770-1827  
Germany

**Sonata for Piano and Violin No. 4  
in a minor, Op. 23**

20'

- I. Presto
- II. Andante scherzo, piu allegretto
- III. Allegro molto

L. v. Beethoven 1770-1827  
Germany

**Sonata for Piano and Violin No. 5  
in F Major, Op. 24 'Spring'**

24'

- I. Allegro
- II. Adagio molto espressivo
- III. Scherzo (Allegro molto)
- IV. Rondo (Allegro ma non troppo)

**CREDIA**  
I N T E R M I S S I O N

L. v. Beethoven 1770-1827  
Germany

**Sonata for Piano and Violin No. 9  
in A Major, Op. 47 'Kreutzer'**

44'

- I. Adagio sostenuto - Presto
- II. Andante con variazioni
- III. Finale (Presto)

**COLUMBIA ARTISTS**

[www.columbia-artists.com](http://www.columbia-artists.com)  
[www.anne-sophie-mutter.de](http://www.anne-sophie-mutter.de)

Ms. Mutter records for Deutsche Grammophon and is available on  
EMI Classics and Erato/Warner Classics.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 CLARK

대자연이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 클락을 만나다

대한항공 필리핀 클락 매일 운항  
클락의 모든 즐거움, 아침 출발로 여유롭게 누리세요



[www.koreanair.com](http://www.koreanair.com)





루트비히 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4번 가단조,  
작품번호 23

Ludwig van Beethoven  
Violin Sonata No. 4  
in a minor, Op. 23

1800년 즈음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은 음악적 영감으로 충만했다. 당시 베토벤이 사용했던 스케치들을 보면 교향곡 2번과 바이올린 소나타 4~5번, 피아노 소나타 11~14번, 그리고 1799년에 완성했던 현악사중주곡들의 수정이 뒤섞여 있다. 1801년에 썼던 “또 다른 작품을 이미 시작했지만 한 작품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종 서너 작품을 동시에 만들어 내기도 한다.”라는 글에서 당시 복잡했던 상황이 짐작된다. 실제로 베토벤은 1801년에 바이올린 소나타 4번과 5번을 거의 동시에 마무리했으며 바로 출판사에게 보냈다. 본래 이 두 곡은 작품번호 23의 1번과 2번으로서 한 권으로 출판하기를 원했지만, 출판사의 조판 실수로 별개로 출판되었다.

<바이올린 소나타 4번>은 3년 전에 작곡된 세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들과는 달리, 음악적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18세기의 일반적인 바이올린 소나타들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 위주에 바이올린 오블리가토가 더해진 형태에서 벗어나 이중주를 지향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런데 1악장에서부터 특이한 점이 감지된다. 일반적으로 1악장은 빠른 템포를 갖기는 하지만, 이 곡에서는 피날레에 자주 사용하는 ‘프레스토’를 지정하여, 시작과 함께 관객이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내달린다. 이렇게 처음부터 숨 막히는 긴장감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어떤 단서도 없지만, 당시 귀족의 힘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을 읽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귀족인 모리츠 폰 프리스 백작(Count Moritz von Fries)에게 헌정한 것은 역설 혹은 조롱일까? 사실 귀족에 대한 베토벤의 태도는 이중적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지나친 일반화로 보인다.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 앞선 초기 바이올린 소나타들과는 달리 평론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1악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프레스토’ 즉 매우 빠르게 연주된다. 첫 주제는 피아노에 의해 주도된다. 처음에서 상승하는 삼현음이 반복하면서 긴장감을 만들고, 고음에서 하강하는 음형으로 불길한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바이올린은 중음주법으로 화음을 연주하거나 피아노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문다. 제2주제는 바이올린에 의해 시작된다. 길고 짧은 음이 반복되는 리듬이 긴 이음줄로 연결되어 제1주제보다는 유연하지만, 곧 피아노가 두 성부를 더하여 3성 대위법으로 진행하면서 긴장감은 그다지 누그러지지 않는다. 이후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바이올린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음악도 더욱 격렬해지며, 코다에 이르러 힘차게 마친다.

2악장도 매우 독특하다. ‘느리게 스케르초 풍으로, 조금 빠르기보다 더욱 빠르게’ 이 수수께끼 같은 표기는, 제1주제는 느리면서도 유희적이며, 제2주제는 약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두 음씩 사이좋게 교대로 연주하는 제1주제는 마치 어린 아이가 뽀뽀기 놀이를 하는 것 같으며, 제2주제는 피아노가 처음에서 제시한 후 푸가로 진행된다. 이 두 주제를 기반으로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한다.

3악장은 ‘매우 빠르게’로,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악장의 시작과 함께 피아노가 정박으로 움직이는 긴 제1주제를 제시하고, 곧 하강하는 피아노와 상승하는 바이올린이 교차되는 제2주제가 등장한다.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바이올린의 느린 선율에 피아노 화음을 더한 코랄 풍의 주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세 주제를 가지고 론도 형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은 조용히 여운을 남기며 마친다.

### 루트비히 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바장조,  
작품번호 24 ‘봄’

### Ludwig van Beethoven

Violin Sonata No. 5  
in F Major, Op. 24 ‘Spring’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은 4번과 동시에 작곡되었지만, 이 둘은 마치 서로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쌍둥이 형제와 같다. 즉, 4번은 어둡고 반항적이라면, 5번은 밝고 부드러우며 여유가 있고 따뜻하다. 5번이 바장조로 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장조는 전원풍의 평화롭고 포근한 분위기의 작품에 두루 사용되던 조성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에서도 바장조가 사용되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이 곡이 봄을 맞이하는 밝은 기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860년대에 이미 ‘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베토벤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음악학자인 장 마생(Jean Massin)과 브리짓트 마생(Brigitte Massin)은 ‘베토벤 연구’(1970)라는 책에서 베토벤에게 바장조는 ‘불멸의 연인’ 요제피네 브룬스비크(Josephine Brunswick)와 그의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곡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 곡이 작곡되던 때는 요제피네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혹시 이 곡의 주제는 그녀에 대한 베토벤의 마음이 아닐까? <봄 소나타>가 이전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사랑스러운 노래 선율을 들려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1801년 4월에 브라이트코프 저널 출판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전 작품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12’에 대한 비평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다. “당신의 평론가들에게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좋은 의도로 평가해달라고 조언해주시시오. ... 저는 비평을 뛰어넘기 위해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반감이 있는 평론가들의 격렬한 반응은 매우 굴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곡은 평론가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이 곡은 4번과 함께 베토벤의 작품 중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 작품들을 썼던 이 작곡가의 재치 있고 열정적이며 당돌한 정신은 이제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고, 모든 무절제한 표현을 제거했다. ... 이전의 몇 작품들과 달리 연주하기 어렵지 않고, 더 많은 청중에게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헌정자는 4번과 같은 모리츠 폰 프리스 백작이었다.

<봄 소나타>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네 악장을 가지고 있는 첫 소나타이다. 1악장 시작과 함께 바이올린이 주제를 연주하는 것도 베토벤에게는 첫 시도인데, 이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K. 301>(1778)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이내믹과 조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화성적으로 모호한 부분들도 있다. 첫 출판에서는 베토벤의 실수로 생각하여 올바르게(?) 수정되었지만, 요즘에는 베토벤의 초고에 따라 재수정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느린 2악장은 서정적인 주제가 피아노에 의해 먼저 제시된 후 바이올린이 이어받는다. 짧은 간주가 나타난 후, 두 악기는 사랑의 속삭임과 같은 대화를 이어간다. 3악장은 1분 남짓의 매우 짧은 스케르초로, 베토벤의 음악적 유머가 한껏 발휘되어 있다. 두 악기의 교차된 리듬으로 선율을 연주하며, 중간 트리오 부분은 작은 언덕을 뛰어넘는 듯 급히 오르락내리락한다. 마지막 4악장은 론도로, 다양한 표정들을 가진 선율들이 등장한다. 리듬을 다양하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거칠 재현부가 나타나기도 하며, 1악장 주제가 카메오처럼 등장하는 등 베토벤의 위트가 배어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가장조,  
작품번호 47 '크로이처'

Ludwig van Beethoven

Violin Sonata No. 9  
in A Major, Op. 47 'Kreutzer'

베토벤은 1797년부터 이후 6년간 바이올린 소나타를 아홉 곡이나 작곡했다. 그리고 이후 <바이올린 소나타 10번>(1812)을 작곡하기까지 약 9년간 이 장르에 손대지 않았다. 이것은 베토벤이 '바이올린 소나타'라는 장르에 대해 지향하던 어떤 이상이 있었으며, 아홉 번째에 이르러 이를 달성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그 곡이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1803)이다.

<크로이처 소나타>에서 달성했던 바이올린 소나타에 대한 목표는 베토벤이 이 곡에 대해 직접 적은 문구에 잘 드러난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오블리가토를 위한 소나타, 협주곡과 유사한 협주적 스타일로 쓰인 작품." 베토벤 이전의 고전시대 작곡가들은 건반이 주선율과 반주를 모두 담당하고 기악은 건반을 돕는 구도의 기악 소나타를 작곡했다. 이러한 형태의 기악 선율을 '오블리가토'라고 하며, 그래서 당시의 바이올린 소나타들을 '피아노와 바이올린 오블리가토를 위한 소나타'라고 불렀다. 하지만 베토벤은 기악이 음악을 주도하여 건반과 균등한 비중으로 조화 및 대립하는 구도를 시도했다. 그리고 9번에 이르러 '협주곡 스타일'로서 이 시도를 완성한 것이다. 이로써 바이올린에는 협주곡의 독주, 피아노에는 관현악의 내용을 부여하여 한층 음악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크로이처 소나타>는 낭만시대 기악 소나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기악 소나타로까지 평가를 받기도 한다. 톨스토이는 이 곡에 큰 감명을 받아, 바이올린 선생과 부인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는 내용의 소설에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극적인 대립관계를 은

유하여 ‘크로이처 소나타’(1889)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 곡은 폴란드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지 브릿지타워 (George Bridgetower)를 위해 작곡되었다. 그런데 베토벤과 브릿지타워는 소나타를 초연하기 이전 만 하더라도 관계가 좋았으나, 초연 이후 멀어지게 되었다. 아침 8시라는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연주회를 연 데다, 연습을 거의 하지 못해 초견 수준으로 연주했던 것이다. 게다가 초연 후 둘이 술을 마시면서 브릿지타워가 베토벤이 흠모하는 여인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베토벤은 헌정자를 프랑스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로돌프 크로이처 (Rodolphe Kreutzer)로 바꿨다. 하지만 정작 크로이처는 난해하다는 이유로 이 곡을 단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다.

1악장은 특이하게도 바이올린이 서주를 연주하며 시작한다. 느리고 무반주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며 순간적으로 감상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본론으로 들어서면 매우 빠른 템포로 스타카토를 연주하는 제1주제가 등장하며, 느리고 온화한 제2주제와 함께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협주하여 고요함부터 격렬한 감정까지 폭넓게 표현한다. 2악장은 변주곡으로, 피아노가 아름다운 주제를 제시한다. 1변주는 피아노가, 2변주는 바이올린이, 3, 4변주는 두 악기가 뒤엉켜 진행된다. 마지막에는 느리고 고요하게 마무리한다. 3악장 피날레는 본래 <바이올린 소나타 6번>(1801-02)을 위해 작곡된 것이다. 뽀뽀기를 하는 듯한 타란텔라 리듬을 가진 무계감 있는 제1주제와 귀여운 제2주제가 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다. 급류와 같이 휘감겨 진행하면서 최고조에 이른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

Anne-Sophie Mutter  
Violinist



안네 소피 무터는 경이로운 음악가이자 비르투오소로 40년 넘게 세계 주요 공연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계에서 독주자이자 멘토, 그리고 선구자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4번의 그레미상 수상자인 무터는 고전작품들은 물론 음악의 미래를 위해서도 헌신해 왔는데, 진은숙, 세바스찬 커리어, 앙리 뒤티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비톨드 루토슬라프스키, 노버트 모레,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앙드레 프레빈, 볼프강 립, 그리고 존 윌리엄스 등과 같은 현대 음악 작곡가들이 그녀에게 헌정한 곡을 연주하며 지금까지 27개의 곡을 세계 초연하였다. 또한 그녀는 수많은 자선 사업에도 힘쓰고 있는데 1997년 가을 ‘안네 소피 무터와 친구들 재단’과, 2008년 ‘안네 소피 무터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있는 미래의 음악가들을 후원해오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재단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 개개인들에게 맞춤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무터는 2011년부터 재단의 장학생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인 ‘무터 비르투오지’와 함께 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19 시즌, 아시아, 유럽, 북미와 남미에서 열리는 공연은 그녀가 가진 음악적 다재다능함 뿐 아니라 세계 음악계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명성을 보여준다. 3월에는 세바스찬 커리어의 고스트 트리오를 카네기 홀에서 초연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외르크 비트만의 현악 사중주를 초연할 예정인데, 두 곡 모두 무터를 위해 쓰여지고 그녀에게 헌정된 곡이다. 올 9월에는 그녀의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공연을 가졌다. “Across the Stars”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오스카 상을 수상한 작곡가인 존 윌리엄스의 명곡들을 뮌헨의 피니히스광장에서 연주했는데, 이 야외 콘서트에서 연주된 곡들은 대부분 무터를 위해 특별히 편곡된 버전이다. 이처럼 새로이 선보인 존 윌리엄스의 레파토리는 올해 8월 앨범으로 발매되었다. 이외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연주하고, 남미와 유럽에서 다니엘 바렌보임, 그리고 요요마와 함께 베토벤의 삼중주 콘체르토를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이며, 안네 소피 무터 재단의 앙상블인 ‘무터 비르투오지’와 함께 남미에서의 첫 공연을 갖는다.

2019년 6월 무터는 플라뮤직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3월에는 독일인으로서 처음으로 폴란드로부터 문화 예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리아 아티스 골드 메달을 수여받았다. 그 해 2월에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의 명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7년 11월 루마니아 문화 훈장과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코망데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2016년 12월, 스페인 문화체육교육부로부터 문화예술 골드 메달을 받았으며, 2015년 1월에는 옥스포드 대학교 케블 칼리지의 명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1월에는 바르샤바의 루토슬라프스키 협회로부터 훈장을 받은 후, 10월에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명예 외국인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아틀란틱 협의회로부터 예술 리더십 상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사회 활동에 대한 공로로 브람스 상, 에리히 프롬 상, 구스타프 아돌프 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2009년에는 유로 피안 성 올리히 상과 크리스토팔 가바론 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국제 에른스트 폰 지멘스 상과 라이프치히 멘델스존 상을 수상했다. 안네 소피 무터는 독일 십자 훈장, 레지옹 도뇌르 상, 바바리안 공로 훈장, 오스트리아 공로 훈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Anne-Sophie Mutter has been an international figure in the world's major concert halls for over 40 years, making her mark on the classical music scene as a soloist, mentor and visionary. The four-time Grammy® Award winner is equally committed to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composers as to the future of music, having given the world premieres of 27 works by composers including Unsuk Chin, Sebastian Currier, Henri Dutilleux, Sofia Gubaidulina, Witold Lutoslawski, Norbert Moret, Krzysztof Penderecki, Sir André Previn, Wolfgang Rihm and John Williams. Ms. Mutter also dedicates herself to numerous benefit projects and to supporting future generations of musicians through the world-renown Anne-Sophie Mutter Foundation.

Mutter commemorates the 250th birthday of Ludwig van Beethoven throughout the 2019/2020 season, beginning in September 2019 with performances of his Violin Concerto with the Orchestre symphonique de Montréal and the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 In October 2019, Mutter performs Beethoven's Tripe Concerto with Franz Welser-Möst and the Cleveland Symphony Orchestra for Carnegie Hall's season opening concert. She then performs the Triple Concerto with Daniel Barenboim, Yo-Yo Ma and the West-Eastern Divan Orchestra in Cologne, Paris, and Berlin, before embarking on a recital tour of China, Korea, and Taiwan, joined by Lambert Orkis in Beethoven's "Spring" and "Kreutzer" Sonatas. Mutter and Orkis repeat this program in January 2020 for their five-city North American recital tour. A chamber program of Beethoven string trios and quartet form the basis for Mutter's Spring 2020 schedule, with appearances in San Francisco, New York, Tokyo, Vienna, Hamburg, Frankfurt, Berlin, and Barcelona.

Mutter brings her seasonwide celebration of Beethoven to a thrilling conclusion in May and June 2020, performing Beethoven's Violin Concerto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Manfred Honeck, the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Fabio Luisi, San Francisco Symphony conducted by Michael Tilson Thomas, Vancouver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Otto Tausk, the MET Orchestra at Carnegie Hall conducted by Yannick Nezet-Séguin, and the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Manfred Honeck.

Mutter will also lead The Mutter Virtuosi, the ensemble of the Anne-Sophie Mutter Foundation, on the ensemble's debut tour in South America in October and November 2019.

A four-time Grammy® Award winner, Mutter released her latest recording, *Across the Stars*, featuring selections from John Williams' most celebrated and beloved film scores, on Deutsche Gramophon on August 30, 2019.

In March 2018, Mutter became the first German artist to receive Poland's Gloria Artis Gold Medal for Cultural Achievements and in June 2019 she received the coveted Polar Music Prize, awarded to both classical and popular artists who have made important cultural contributions. She was also a recipient of the German Grand Order of Merit, the French Medal of the Legion of Honour, the Bavarian Order of Merit, the Decoration of Honour for Services to the Republic of Austria, and numerous other honors.



안네 소피 무터가 연주한  
존 윌리엄스 작품집

ACROSS THE STARS



CREMA



21세기 카르멘 판타지!

바이올린을 위해 재탄생한  
스타워즈 · 해리포터 · 신들러 리스트

영화 음악 수록

존 윌리엄스 편곡 & 지휘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

---

Lambert Orkis  
Pianist

램버트 오키스는 실내악 연주자, 현대 음악가, 원전악기 연주자로서 국제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1988년부터 줄곧 함께 작업해 온 안네 소피 무터 외에도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파트너로서 11년 넘게 한 무대에 섰다. 또한 28년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와 함께 세계 정상급 공연장에서 장내를 가득 메운 청중 앞에서 연주해왔다. 무터와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녹음한 많은 음반과 DVD 중 작년 <더 클럽 앨범>이 발매되었으며 모차르트(쇼크 상)와 베토벤(그래미 상), 브람스 소나타 전곡 또한 발매하였다.

오키스는 첼리스트 린 하렐, 안니 빌스마, 다니엘 뮐러 쇼트와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안 라클린, 비올리스트 스티븐 댄과 함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으며 베르타보, 에머슨, 아메리칸, 멘델스존, 커티스 그리고 맨체스터 스트링 콰르텟과 함께 공연해왔다. 솔리스트로서는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레너드 슬래트킨, 라파엘 프리백 디 부르고스, 귄터 헤르비히, 로버트 카필로우, 레온 플라이셔, 케네스 슬로빅 등과 공연했다.

또한 오키스는 조지 크럼, 리처드 워닉, 제임스 프리모쉬의 솔로곡을 초연했고 브릿지 레코드와 함께 녹음해왔다. 내셔널 교향악단의 수석 첼리스트 데이비드 하디와 함께 소노 루미너스 레이블을 통해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전곡을 현대악기와 원전악기 모두를 사용하여 연주하기도 했다. 호주 뮤지카 비바 페스티벌에 특별 아티스트와 교수로서 참여했으며, 트론헤임 국제 실내악 콩쿠르/페스티벌에도 심사위원과 연주자로도 두 차례 참여하였다. 미국 카네기홀 국제 음악 콩쿠르의 피아노 부문과 케네디 센터 프리드하임 어워드 콩쿠르는 오키스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왔다. 또한 오키스는 대만의 뉴 에스팩트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의 명예 아티스트이며, 타이베이에서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였다.

오키스는 오케스트라 협연자로서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케네디센터 실내악 단원이자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캐슬 트리오(Castle Trio)의 원전악기 연주자로 연주 및 녹음 작업을 해왔다. 동시에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피아니스트이며,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오키스는 그의 음악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다.



Lambert Orkis's multi-decade international performing career encompasses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music performed on modern and period instruments, and includes more than eleven years of touring as a partner with cellist Mstislav Rostropovich, and more than thirty years appearing with violinist Anne-Sophie Mutter to capacity audiences in the world's finest performance venues. Their many recordings and DVDs for Deutsche Grammophon include the complete sonatas by Mozart (Choc de l'année Award), Beethoven (Grammy Award), and Brahms. In acknowledgment of his accomplishments, Mr. Orkis was honored with the Cross of the Order of Merit b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is distinguished career includes appearances with cellists Lynn Harrell, Anner Bylsma, Daniel Müller-Schott, Amanda Forsyth, and Tanja Tetzlaff, violinist Julian Rachlin, and violist Steven Dann, and he has performed with the Vertavo, Emerson, American, Mendelssohn, Curtis, Manchester, Goldner, and Elias string quartets, and the Arcadia Winds. As soloist he has made appearances with conductors including Christoph Eschenbach, Mstislav Rostropovich, Leonard Slatkin, Rafael Frühbeck de Burgos, Günther Herbig, Robert Kapilow, Leon Fleisher, Kenneth Slowik, and others.

Mr. Orkis has premiered and recorded compositions of numerous composers, including solo works by George Crumb, Richard Wernick, and James Primosch for Bridge Records. With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s Principal Cellist David Hardy, he performs using both modern and period instruments Beethoven's complete works for piano and cello on the Sono Luminus label.

Mr. Orkis twice participated as a distinguished performing artist and teacher for Australia's Musica Viva Festival and has served three times as juror, most recently as Jury Chairman, and performed for the Trondheim International Chamber Music Competition and Festival. The Carnegie Hall International American Music Competition for Pianists and the Kennedy Center Friedheim Awards Competition have engaged him as adjudicator. As an Honored Artist for Taiwan's New Aspect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 performed and presented master classes in Taipei.

He has appeared internationally as orchestral soloist, performs and has recorded as a member of the Kennedy Center Chamber Players and the Smithsonian Institution's Castle Trio (period instruments), and holds the positions of Principal Keyboard of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Washington, DC, and Professor of Piano at Temple University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CREDIA

© KRISTIAN SCHÜLLER

시들지 않는 기품과 향기,  
현의 여제  
안네 소피 무터

---

안네 소피 무터가 내한한다. 품격 있는 바이올린의 톤과 빼어난 외모, 쉽게 시들지 않는 음악의 풍요로움이 데뷔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네 소피 무터’의 이름과 향기를 유지하게 만든다. 오는 11월 29일,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들로 램버트 오키스의 피아노와 함께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음악은 언제나 긍정의 기운을 지닌다. 열네 살에 카라얀, 베를린 필과 데뷔 무대를 치른 이후 40년이 넘도록 수백 번의 무대를 갖고 7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한 그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모차르트 협주곡 시리즈부터 앙드레 프레빈의 협주곡 ‘안네 소피’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다채롭게 선보여온 그인데 말이다.

마치 타고난 듯한 기품 있는 우아한 음색은 긴 세월의 디스코그래피를 되짚어보아도 여전하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공사가 금줄을 뽑아내는 것만 같다. 완벽의 경지를 향하면서도 결코 고립을 자처하지 않고, 듣는 이들을 자신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 설득의 의지를 내재한 추동력이 무터의 보석 같은 톤을 허세스럽지 않게, 순수하게 반짝이도록 돕는다. 그러니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무터의 음악을 만나면 의욕이 느껴지고, 또 그가 어떤 작품을 연주해도 늘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카라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10대 시절에도, 여전히 날 선 감각과 깊이로 도전을 마지않는 오늘날에도 그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 오는 11월 29일에는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들로 1년 만에 다시 한국 관객을 만난다. 4번과 5번 ‘봄’, 9번 ‘크로이처’가 무터의 단단한 커리어 위에 또 어떤 새로운 꽃을 피어나게 할까.

### 다시, 베토벤 속으로

무터는 지난 9월 특별한 베토벤 시리즈를 시작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신시내티에서는 한국의 김은선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다. 2020년까지 무터는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첼리스트 요요 마,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실내악단 ‘무터 비르투오시’ 등과 뉴욕, 베를린, 파리, 아르헨티나 등에서 베토벤의 다양한 작품을 연주한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다.

무터가 연주하는 베토벤이라면 많은 이가 1998년의 소나타 전곡 음반(DG)을 떠올릴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리 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서른다섯의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베



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는 것은 크게 화제가 될 만한 기획이었다. 네 장의 음반에 총 열 개의 작품을 담기 위해 무터가 고심했던 흔적이 당시의 인터뷰(anne-sophie-mutter.de)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베토벤 생가를 여러 번 방문하고 오리지널 스코어를 탐구하며 그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려 애썼다고 한다. 하이든,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작품들부터 궁극의 이상에 도달하고자 했던 마지막 작품까지, 무터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작법의 변화를 파악하며 그 의도를 체득했다.

이번 한국 공연에서 연주할 4번과 5번, 9번은 무터가 사랑해 마지않는 작품들이다. “소나타 4번에 내재된 어두움을 알지 못한다면 5번의 ‘봄’을 불러낼 수 없다”고 그 연결 고리를 분석하며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악기 간 긴밀한 관계성을 완성해낸 것도 이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소나타 9번 ‘크로이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완벽한 대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중하고도 생기 넘치는 이 음반은 무터에게 에코상과 그래미상을 안겨주었다.

무터가 호흡을 맞출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는 1988년 미국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듀오 작품을 함께 연주한 무터의 오랜 음악 동료이다. 앞서 언급한 베토벤 음반 외에도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2006), 브람스 소나타 전곡(2010)을 녹음한 바 있으며 이번 베토벤 프로젝트에서도 무터의 든든한 파트너를 자처했다. 그야말로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는 분신 같은 존재인 셈이다. 오키스는 솔리스트로도 인정받아 다양한 무대에 선 바 있으며 과거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파트너로 11년 넘게 활동하기도 했다.

## CREEDIA

### 무터가 일구는 미래

강수진은 창작 발레를 추고 나면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연주자도 마찬가지일까? 그렇다면 무터의 활은 얼마나 무궁무진한 움직임의 지닐까.

무터는 무려 스물일곱 개의 작품을 초연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작곡가 앙리 뒤티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볼프강 립, 앙드레 프레빈, 한국의 진은숙과 할리우드 거장 존 윌리엄스까지 음악사에 귀하게 기록될 동시대 작품들이 모두 무터의 활을 타고 사람들의 귓가에 가 닿았다. 이중에서 남편이었던 프레빈이 헌정한 협주곡 ‘안네 소피’와 번스타인 ‘세레나데’를 커플링한 음반(2003)과 펜데레츠키 협주곡 2번 ‘메타모르포젠’과 버르토크 소나타 2번 음반(1997), 베르크 협주곡과 볼프강 립의 ‘Time Chant’(1992)가 각각 그래미상을 받았다. 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채 동시대 관객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다.

무터가 오래 정성을 쏟고 있는 또 다른 일로는 무터 재단에서 진행하는 후학 양성이 있다. 1997년에 이어 2008년에 두 번째 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의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에도 첼리스트 김두민,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 비올리스트 이화운 등 수혜자가 여럿이며 악기 대여와 장학금, 세계 무대 발판이 될 여러 활동을 지원한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예술적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상상하며 개성을 찾아나가도록 돕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그를 향한 시선들

무티의 커리어를 언급하며 지휘자 카라얀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76년, 열세 살의 소녀 안네가 유럽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인 지휘자 카라얀을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197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데뷔 무대를 치른 무티는 1989년 카라얀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 수많은 무대를 여행했다. 베를린 필과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멘델스존, 브루흐의 협주곡을 녹음했으며, 이후 로스트로포비치, 바렌보임, 클라우디오 아바도, 주빈 메타, 파울 차허 등과도 교류하며 최고의 솔리스트 자리를 지켰다.

오래된 해외 언론 기사들을 뒤적여보면 카라얀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어린 소녀를 향한 의구심부터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 연주자에 대한 낯 뜨거운 수식어, 쓸데없이 구체적인 가정사까지 그를 피로하게 하는 과한 관심이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십들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무티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확장했다.

클래식 음악가에게 수상 이력이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무티의 내력은 과연 화려하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에서 훈장을 받았고,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2008), 폴라 음악상(2019)을 포함해 세계 여러 예술 단체 및 학교들도 무티의 영향력을 추대했다.

무티에 대한 강렬한 개인적 기억을 언급하자면, 물론 훌륭했던 몇 번의 실연도 있지만, 몇 해 전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송년음악회 중계 방송을 보던 순간이다. 새해의 들뜬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가라앉은 기분으로 만난 주홍빛 드레스의 무티는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의 선율을 시원스럽게 그었다. 얼마나 짜릿하고 상쾌하던지, 다른 어떤 인사보다도 마음이 풍요로워졌고 그때부터 무티의 더욱 열렬한 팬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반하는 건 정말 한순간일까. 이번 무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가 그의 음악에 푹 빠지게 될지 궁금하다.(안네 소피 무티 바이올린 리사이틀, 11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글 | 김호경 (음악 칼럼니스트)

위 글은 <클럽 발코니 Club BALCONY> 94호에서 전제한 기사입니다.

# 김난재의 크리스마스 선물

12.25(수) 2PM & 6PM 롯데콘서트홀



| 주최 | CREZIA MUSIC & ARTISTS | 후원 | LOTTE ENTERTAINMENT | 후원 | KOREAN AIR 5G | 티켓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 유키구라모토와 친구들

12.22(일) 2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24(화) 8PM 롯데콘서트홀



| 주최 | CREZIA MUSIC & ARTISTS | 후원 | KOREAN AIR 5G | 티켓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동승하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휴식을 함께 하는 꿈 같은 여행.  
지상과 선상을 오고 가는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여행 일자 : 2020년 9월 19일(토) ~ 30일(수) (10박 12일)
- 여행지 : 마요르카(스페인) - 나폴리(이탈리아) - 팔레르모 - 발레타(몰타) - 산토리니(그리스) - 아테네 - 헤라클리온(크레타)
- 상품가 : 1,680 만원 (현금가, 발코니캐빈 기준)  
인천 - 마요르카 왕복 항공료 별도



### PROGRAM

- [공연1]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협연 : 에뮌 브론프만)
- [공연2]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아테네 헤로도테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 [공연3] 안드레아스 사거 & 리디아 바이흐 리사이틀 /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 [공연4]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 [공연5] 베이스-바리톤 여원 슈로트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6]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7] 빈 필 체임버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하모닉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예정
-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빈 필하모닉과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 카를로 극장과 마시모 극장, 고대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헤로도테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가 전 일정  
동행하며 유럽의 음악, 역사, 그리스 신화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 안네 소피 무터 & 램버트 오키스 리사이틀

#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www.credia.co.kr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